

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억양 패턴 실험

Pitch Patterns of Interrogative Sentences in relation to the Focus

김미란*, 신동현**, 최재웅*, 김기호**

Mi-Ran Kim, Dong-Hyun Shin, Jae-woong Choe, Kee-Ho Kim

ABSTRACT

In spoken language, the characteristics of prosodic realization are related to the meaning of utterance. The pitch pattern of an interrogative sentence which differs from that of declarative sentences can be considered in this respect. If we consider the question-answer pair, we can find that the most important variation comes from the intended meaning of asking. In this paper, we experiment with four kinds of interrogative sentences and show that the difference in pitch patterns of interrogative sentences can be explained in relation to the focus phenomena that is, the differences of the boundary tones in interrogative sentences are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prosodic domain of focus. For a relevant explanation with the focus phenomena, we divided focus into the categories: emphatic focus, which plays a role in delivering the speaker's intended meaning for the sentence interpretation, and informational focus, delivers the central intended meaning of the utteranc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High boundary tone delivers the meaning of asking. Second, the realization of different boundary tones that are found in wh-question and alternative question are just phonetic variations caused by focusing. Third, the high rise boundary tone in echo questions is related to the meaning of surprise or incredulity, and this relation is a consensus of existing opinion, that is, the speaker's attitude of surprise can raise the pitch range. From these results we can distinguish between boundary type and phonetic variation, and we can also give appropriate meaning to the different boundary tones in interrogative sentences that have been regarded as merely a part of sentence type.

Key words : focus, interrogative sentences, intonation pattern, prosodic domain, boundary tone.

1. 서론 : 의문문 억양의 특성

일반 서술문과 의문문은 경계 성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내일 미나가 와요”

*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라는 문장은 경계 성조의 차이에 따라 의문문이 될 수도 있고 서술문이 될 수도 있다. 상승의 경계성조는 질문의 의미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실제 의문문에서는 다양한 경계성조가 나타나고 때로는 하강의 경계성조도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의 경계성조가 일관되게 질문의 의미로 설명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부의문문의 경우에는 높은 상승의 경계성조가 나타나지만, 의문사의문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이나 상승에 이은 짧은 하강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계성조는 의문문의 범주에 따라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서 가부의문문의 경계성조로 의문사의문문의 경계성조를 대신한다면 어색한 억양이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경계성조는 질문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어에서 의문사와 부정사는 어휘 형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표면형의 문장을 실험해 볼 수 있다. 즉, '미나가 어디로 놀러가요'라는 표면형은 억양의 차이에 따라 가부의문문과 의문사의문문, 반복(또는 의심)의문문이 된다. 이때 경계성조는 액센트구의 형성과 함께 세 가지 의문문을 판단하는 데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또한, 선택의문문은 의문사의문문의 경계성조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는데 이는 운율과 의미와의 관계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실험논문에서는 세 가지 의문문, 즉 의문사의문문과 부정사가 포함된 가부의문문, 반복의문문을 비교하는 동시에 의문사의문문과 선택의문문이 갖는 공통된 경계 성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초점이라는 의미 현상과 관련지어 논의하도록 한다. 의문문의 의미와 초점과의 관련은 화자가 의문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의도하는가와 주로 관계 있고, 이것이 발화상에서 의도의 중심에 초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초 점

2.1 초점의 개념

초점에 대한 개념은 음성·의미·형태·통사론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로 '새로운 정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 초점은 운율과 관련하여 설명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초점을 받는 단위가 운율적 돌출림(prominence)을 갖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운율적 돌출림을 갖는 것 중에는 감정상의 이유와 같은 언어외적인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성 언어에서 운율적인 돌출림은 화자의 의도와 발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의에서는 초점을 음성적 특징과 의미와의 관계에서 중심으로 다루기 위하여 초점에 대한 개념을 '발화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며 이러한 의미를 운율적인 특징으로 나타내는 요소'로 규정하고 논의하도록 한다.

2.2 초점의 분류1)

의문문의 운율 특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관련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문문은 질문의 의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며, 앞서 살펴보았던 동일한 형태의 세 가지 의문문이 의미적 차이를 갖는 것은 화자의 질문 의도가 무엇이며, 질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운율 특징과 관련하여 초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먼저, 발화된 내용에서 정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거나 발화에서 화자의 중심 의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운율적으로 돌출됨(prominence)을 갖게 된다. 이는 '신정보' 기능을 하는 단위가 문장에서 초점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보초점'으로 분류한다. 정보 초점은 발화의 중심 의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화자가 선택한 질문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은 발화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발화 전체에서 운율적인 돌출됨을 갖게 된다. 여기서 발화 전체란 질문이 되는 의문문 종결까지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의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IP)와 관련된다.

음성 언어는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속성과 함께 실현된다. 화자는 발화가 진행되는 동안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피치 또는 음의 세기를 높이거나 휴지(pause)를 통해 의도하는 단위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조는 문장 의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발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강조되는 단위에 새로운 지위를 부가하게 된다. 운율적인 측면에서 피치 상승이나 음의 세기가 커지는 변화 등이 그 단위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와 운율 관계를 강조초점으로 해석한다. 강조 초점 개념의 도입은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 등이 기존에 언어외적인 요소로서 배제되었던 부분을 문장 해석에서 발화의 해석이라는 보다 큰 단위를 운율과 연관시켜 화용적인 의미 해석까지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의미 해석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강조 초점과 정보 초점의 특징을 운율 특징과 관련지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미와 운율 실현 특징에 따른 초점의 재분류

초점의 종류	특징	운율 실현 범위
강조초점 (emphatic focus: E-fo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적 대조 의미나 어휘 단위의 대조 의미 * 화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 * 감정이나 태도와 같은 언어외적인 요소도 개입될 수 있음. * 문장 해석에서 초점받은 단위의 의미 강조 	액센트구(AP)
정보초점 (informational focus: I-fo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화의 중심 정보 기능 (의문문의 경우에는 질문의 의도와 직접 관련)	억양구(IP)

1)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초점의 개념은 Gundel(1994)에서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각 심리초점(psychological focus), 의미초점(semantic focus),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이다. 이중 심리초점이 강조초점과 가깝고, 의미초점은 정보초점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점의 분류는 운율과 관련된 강조 의미를 분류하기에는 세 가지 초점 분류가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담화상에서 화자가 감정적 태도나 의도를 나타내는 강조의 의미를 포함하고 운율과 의미와의 보다 직접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위해, 김미란(2000)에서 제시하였던 초점 분류를 따라 강조초점과 정보초점으로 분류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2.3 초점의 운율적 특징

초점과 주로 관련되어 나타나는 운율 특징은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음의 세기(amplitude), 음운구형성(phrasing)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초점이 부여된 단위는 기본주파수를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흔들림을 갖게 되며 소리의 세기도 초점 받는 단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기본주파수는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에 기본주파수의 상승점이 주변부보다 같거나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지각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흔들림(prominence)를 갖게 된다. 흔들림은 절대적인 수치로서가 아니라 주변과의 상대적인 높이로 지각되는데, 억양에서의 일반적인 단계 하강적 곡선에서 이전의 정점과 같거나 높이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다른 부분보다 강조된다고 지각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다음 [그림 1]에서 화살표 표시 부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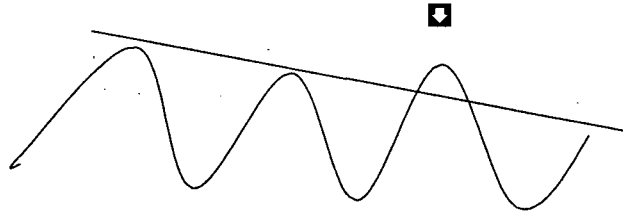


그림 1. 초점이 부여된 경우의 흔들림(prominence)

두 번째로 운율구 형성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음운구해지(dephrasing)이다. 이는 초점받은 단위가 이어지는 음절들을 자신과 하나의 액센트구(Accentual Phrase: AP)로 형성하게 되는 현상이다. 강조 초점이나 정보 초점 모두 음운구해지 현상을 보이며 이는 액센트구의 형성을 관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음의 세기²⁾도 초점을 지각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즉, 기본주파수의 상승이 없더라도 음의 세기가 강한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운율 특징과 경계성조의 차이를 기술해 보도록 한다.

3. 실험

녹음은 DAT를 사용하여 22,000 Hz의 표본률(sampling rate)로 소음이 적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에 참가한 화자는 서울 태생이거나 10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여성 화자 5명이다. 마이크로폰은 Shure condenser microphone을 사용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미국 UCLA에서 개발한 음성 분석용 프로그램인 PitchWorks로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의문문은 질문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문장의 진위를 묻는 가부의문문,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사의문문,

2) 녹음자료에서 음의 세기는 동일한 환경에서 녹음되지 못하여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질문에 선택 대상을 나열하고 그 선택을 응답으로 요구하는 선택의문문, 확인이나 의심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 확인을 요구하는 반복의문문 또는 의심의문문을 자료로 하였다. 한국어에서 의문사 단위는 부정사(indefinite pronoun)와 형태적으로 동일하여 같은 표면 구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문문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세 가지 의문문, 즉 부정사가 포함된 가부의문문과 의문사의문문, 반복의문문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초점과 관련된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가부의문문의 경우에는 대조 초점이 부여되는 의문문을 함께 실험하여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의문사는 '누구, 무엇(뭘), 어디, 언제' 네 가지이며, 하나의 의문사에 대하여 서술문, 일반 가부의문문, 부정사가 포함된 가부의문문³⁾, 의문사의문문, 선택의문문, 반복의문문, 대조초점이 부여된 가부의문문으로 총 7개의 문장을 포함시켰다. 총 실험 문장은 화자(5)*의문사(4)*장문단문(2)*7(문장)의 280문장에 세 가지 어미변화⁴⁾('-요, -까, -니')가 포함된 실험 문장이 84개가 추가되어 총 364가 된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 중에서 '뭘'에 해당하는 단문 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뭘'을 포함하고 의문어미 '-요' 종결형인 실험 문장>

MSD : 미나는 마늘을 안 먹어요. (서술문)

Q1: 미나는 뭘 안 먹나요? (YNQ-부정사포함)

A1: 예

Q2: 미나는 무를 안 먹나요? (YNQ)

A2: 아니요.

Q3: (그럼) 미나는 뭘 안 먹나요? (WHQ-정보 초점)

A3: 오이 아니면 마늘요.

Q4: 미나는 마늘을 안 먹나요, 오이를 안 먹나요? (ALTQ-정보초점)

A4: 오이일걸요.

Q5: 미나가 뭘 안 먹어요? (EQ, 의문사포함-정보 초점->강조초점)

A5: 오이라니까요.

Q6: (놀라서) 어! 마늘이 아니라 오이를 안 먹어요? (YNQ-강조초점)

A6: 예, 그렇다니까요.

실험 문장의 특징은 [표 2]와 같으며, 강조초점과 정보초점에 따라 새롭게 분류되었다.

3) 가부의문문(yes-no question), 의문사의문문(wh-question), 선택의문문(alternative question), 반복의문문(echo-question)에 대한 언급을 논문에서 편의상 약어로 YNQ, WHQ, ALTQ, EQ 등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4) 어미 변화에 따라 경계 성조의 선택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세 가지 의문어미를 추가시켰다. 그러나 의문문의 유형과 의문어미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에서는 비교하지 않았다. 다만, 의문사의문문의 경우 '-까'의 의문어미가 주로 HL%의 경계성조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표 2. 실험 문장의 특징

번호	의문문종류	문장의 특징	초점	초점종류(기존)	재분류
D	서술문	서술문	-	-	-
Q1	YNQ	부정사포함	-	-	-
Q2	YNQ		-	-	-
Q3	WHQ	의문사포함	+	(의문사)초점	+정보초점
Q4	ALTQ	선택의문문	+	대조초점	+정보초점
Q5	WHQ	의문사포함	+	(의문사)초점	(-정보초점),+강조초점
Q6	YNQ		+	대조초점	+강조초점

실험 문장들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D는 일반 서술문의 억양 패턴으로서 일반 가부의문문인 Q2와 비교하여 서술문과 차이를 보이는 의문문의 억양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둘째, Q1, Q3는 어휘 형태가 동일한 부정사와 의문사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의문사와 부정사는 어휘 단위의 운율 특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 내에서의 초점 실현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의문사의문문인 Q3와 선택의문문인 Q4의 억양 패턴을 비교한다. 두 의문문은 특히 경계성조에서 같은 패턴을 보이며, 이는 가부의문문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경계성조에서의 동일함을 두 의문문의 의미적 연관성과 관련지어 설명하도록 한다.

넷째, 의문사의문문인 Q3과 반복의문문인 Q5를 비교한다. Q5 문장은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이면서도 의문사의문문인 Q3과 다른 경계성조를 나타낸다. 정보 초점이 신정보나 발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Q5의 질문 의미는 신정보로서의 기능을 잃기 때문에 정보 초점이 실현되지 않고 단순히 강조 의미의 초점만이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Q4와 Q6는 기존의 초점 분류로는 동일한 대조 초점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문미 억양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문미 억양이 단순히 의문문 형태에만 관련되는 것인지 정보초점과 강조초점의 차이가 가져오는 음성적 변이인지를 논의하도록 한다.

4. 결과 분석 및 논의

실험 자료는 K-ToBI ver. 3.0(전선아, 2000)에 기초하여 발화를 전사⁵⁾하였다. 초점을 받은 부분은 기본주파수가 일반적인 단계 하강적 곡선에서 흔들림을 갖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율구 형성에서 음운구 해지를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실험 결과는 4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5) 논의에 필요한 부분이 액센트구의 형성과 경계성조의 유형이므로 편의상 세 층위(Underlying tone level, Surface tone level, word level)만 표기하였다.

1) 서술문과 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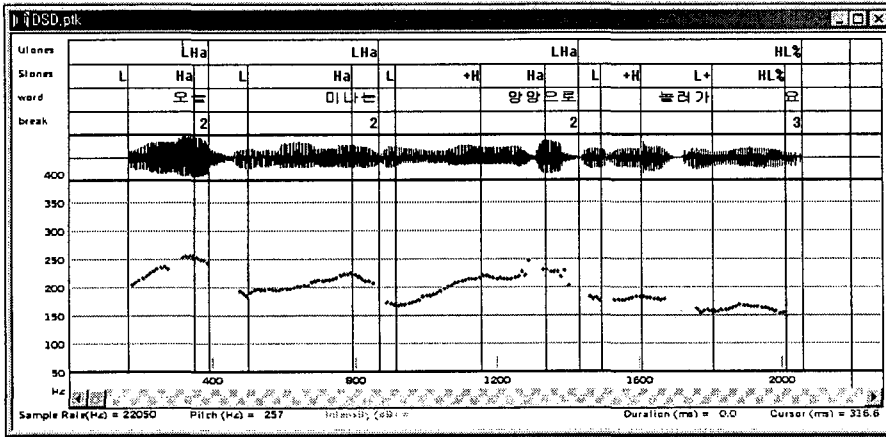


그림 2. 서술문의 억양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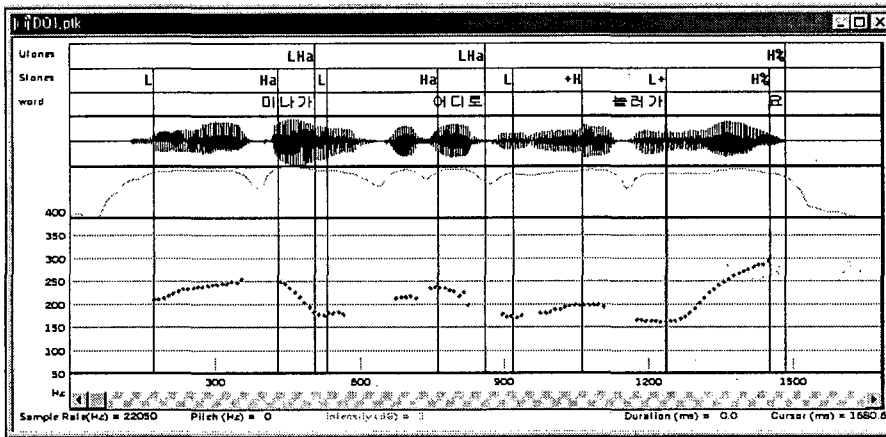


그림 3. 가부의문문의 억양 패턴

서술문과 의문문은 경계성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술문에서는 L% 경계성조가 나타나고 의문문은 H% 경계성조로 나타나는 것이 큰 차이이다. 이러한 H% 경계성조는 발화상에서 질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림 2]는 서술문의 억양 패턴이며 [그림 3]은 가부의문문의 억양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두 문장 모두 서울 방언의 일반적인 성조 패턴을 나타내며 액센트구를 형성하고 있다.

2) 가부의문문과 의문사의문문

실험에서 부정사를 포함한 가부의문문과 의문사의문문은 표면형이 동일하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음운구 형성과 경계성조이다. 가부의문문과 의문사의문문, 반복의문문을 구별하는 데 음운구 형성과 경계성조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전선아·오미라(1995) 실험 논문에서 이미 기술된 바 있다. 의문사 의문문에 나타내는

경계성조는 가부의문문에서 나타날 수 없으며,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에도 가부의문문의 경계성조와는 함께 나타나기 어렵다. 이는 두 가지 의문문에 나타나는 경계성조가 변별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본 논의에 따라 의문사의문문에서 정보초점이 실현되어 경계성조의 상승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문사의문문에 나타나는 낮은 상승의 경계성조를 단순히 의문문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경계성조의 유형으로만 기술한다면 의문사의문문에 나타나는 낮은 H%와 HL%를 같은 의미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의문사의문문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경계성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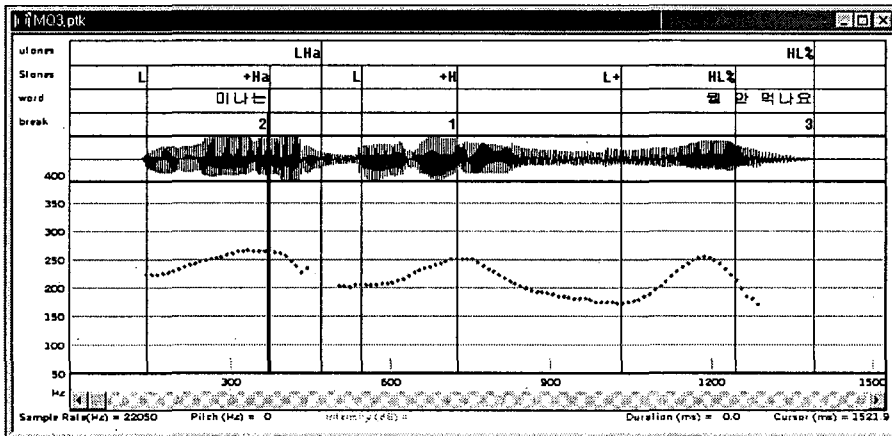


그림 4. HL%의 의문사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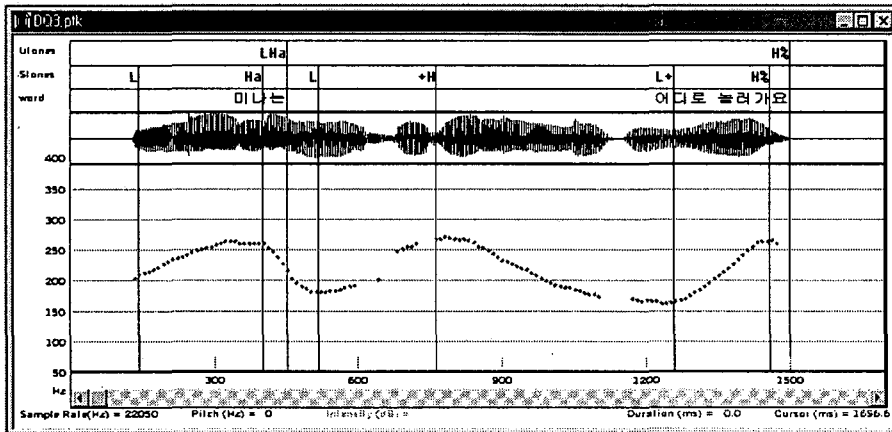


그림 5. H%의 의문사의문문

또한 단순히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경계성조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은 의문사의문문이 가부의문문이나 반복의문문과 중의성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계성조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림 5]에서 나타나는 경계성조 끝 지점의 기본주파수 값은 240 Hz이며 가부의문문인 [그림 3]의 경우에는 300 Hz 정도가 된다(반복의문문의 경우에는 370 Hz). 그러나, 피치값의 범위(pitch range) 문제는 K-ToBI 전사 체계에서 독립적인

성조 유형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이는 화자의 감정상의 태도나 의도 등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계성조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억양구 내에서 초점을 받은 단위를 돌돌리게 하는 데 경계성조가 공조하는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일관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 가부의문문과 의문사의문문은 음운구 형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의문사의문문의 경우 의도적인 휴지(pause)가 있지 않는 한, 이어지는 단어들을 음운구해지시키고 자신과 함께 하나의 액센트구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초점 현상이 갖는 음성적 특징으로 기술될 수 있다. 즉, 의문사의문문에서 의문사는 질문의 중심을 갖기 때문에 정보초점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정보초점은 문장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이며 발화 단위에서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운율에서의 돌돌림(prominence)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돌돌림은 운율적으로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 의문사의문문은 질문에서 의문사에 해당하는 단위가 질문의 초점이 되어 이것이 운율적으로도 초점 실현의 범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초점은 의문문 발화 전체가 운율 실현 범위가 된다. 이러한 의미 작용을 통해 의문사의문문에 나타나는 경계성조는 질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H% 타입을 가지면서도 의문사 단위의 돌돌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경계성조를 낮추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가부의문문인 [그림 3]과 의문사의문문인 [그림 5]를 비교해 보면 경계성조 끝 부분의 기본주파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가부의문문의 경우에서도 초점이 부여되어 돌돌림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질문의 중심이라기보다는 문장 내의 의미 관계에서 문장 성분간의 대조 의미나 강조를 전달하게 된다. 이것은 의미 해석이 가까운 것이 같은 액센트구로 형성되기 쉽다는 측면에서 운율 실현 범위가 액센트구를 단위로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초점이 실현되는 단위가 억양구라면 강조초점은 액센트구를 범위로 하고 경계성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의문사의문문과 선택의문문

억양의 특징을 단순히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기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선택의문문의 문미 억양이 갖는 특징 때문이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선택의문문의 경계성조는 [그림 6]에서 보이는 의문사의문문의 경계성조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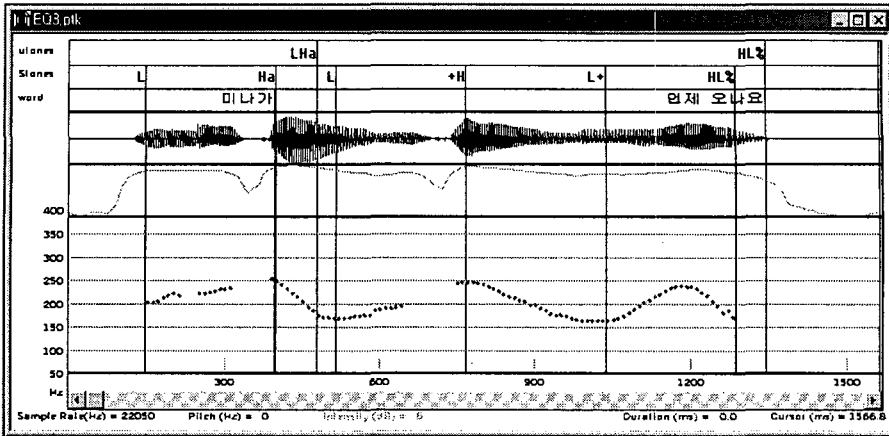


그림 6. '언제'를 포함하는 의문사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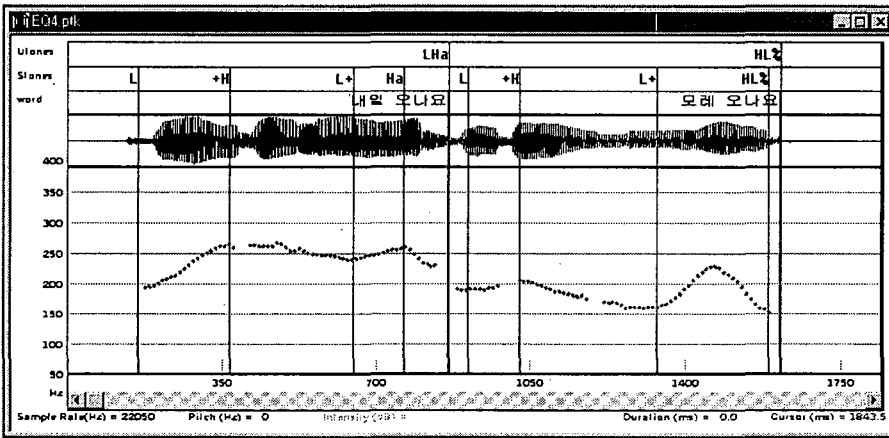


그림 7. '언제'를 포함하는 선택의문문

가부의문문과 의문사의문문이 경계성조에서 차이를 보이듯이 선택의문문도 가부의문문과 경계성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계성조에서의 의문사의문문과 선택의문문의 공통점은 두 가지 의문문이 발화에서 전달하는 의미 기능이나 화자의 의도 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의문문의 분류에서 두 가지 의문문은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되지만 질문과 응답에서 청자로 하여금 정보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선택의문문을 초점과 관련지어 살펴볼 때 기존의 분류상으로는 일관된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에 보이는 두 의문문의 차이 때문이다. [그림 8]과 [그림 9]는 '어디'를 포함하는 선택의문문과 가부의문문이다. 두 의문문은 기존의 분류상으로 대조 초점이 부여되고 있다. 두 의문문에서 초점을 받은 단위는 이어지는 단위를 음운구해지시키고 초점을 받은 단위가 피치상에서 돌출됨을 갖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경계성조에서는 높은 H%와 HL%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택의문문에서는 HL%와 함께 의문사의문문과 마찬가지로 낮은 H%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화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경계성조이다. 따라서 기존의 대조초점 개념으로는 의미와 관련된 경

계성조의 차이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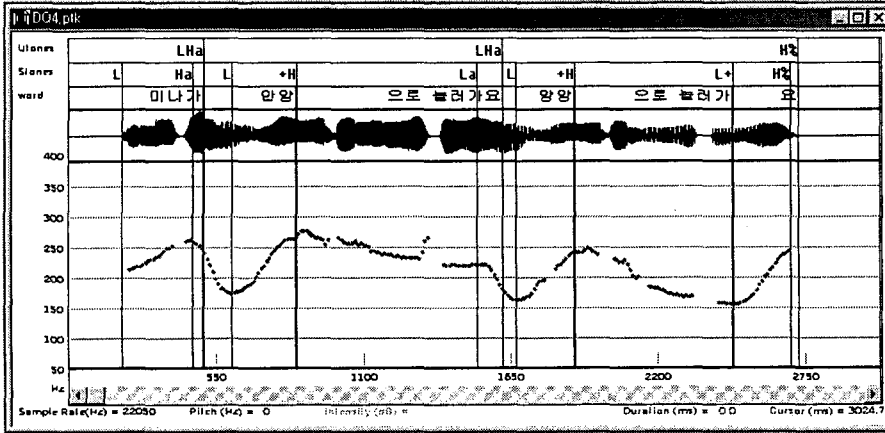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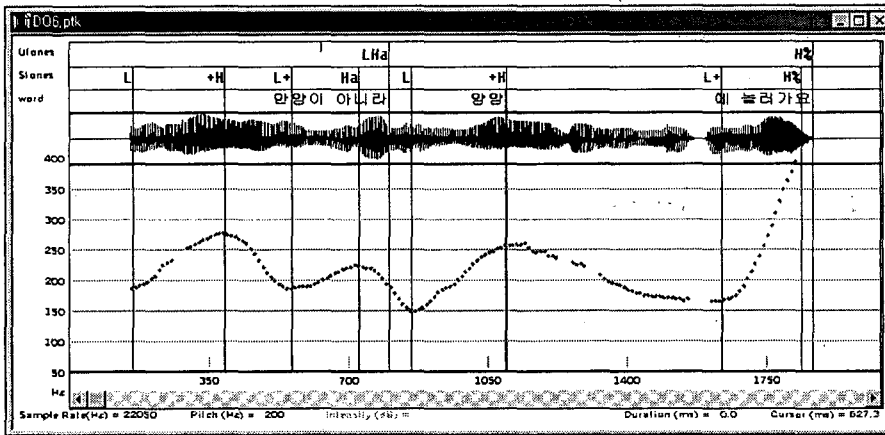


그림 8. '어디'를 포함하고 대조 초점이 부여된 선택의문문



[그림 9] '어디'를 포함하고 대조초점이 부여된 가부의문문

이를 정보초점과 강조초점의 분류로 본다면, [그림 8]은 화자의 질문 속에 청자가 선택해야 하는 단위들이 나열되고 있고 이것이 질문의 중심 의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는 정보초점이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발화 전체를 범위로 돌들림을 갖게 되어 경계성조가 낮아지거나 운을 실현 범위에서 정보초점의 돌들림을 유지하기 위해 상승의 경계성조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하강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림 9]에서는 대조되는 단위들이 강조의 초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문장 내에서의 강조에 그치며 경계성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질문의 의도대로 H%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9]에서의 경계성조는 H%로 가부의문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여기서 경계성조의 가장 높은 지점의 기본 주파수가 350Hz인 것은 주어진 실험 자료의 맥락에서 Q6의 질문은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의미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기본 주파수

가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의문사의문문과 반복의문문6)

주어진 [그림 10]과 [그림 11]을 비교해 보면, 의문사가 포함된 부분에서 음운구해지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언제' 부분에 초점이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예에서는 두 가지 의문의 경계성조가 각각 HL%와 H%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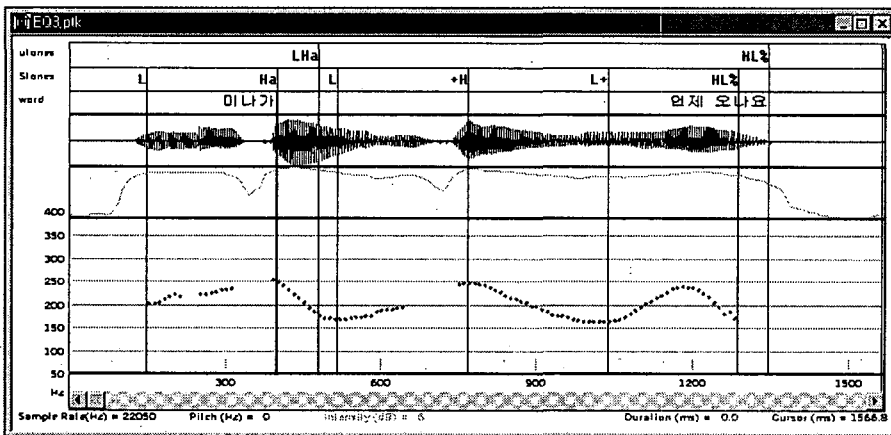


그림 10. '언제'를 포함하는 의문사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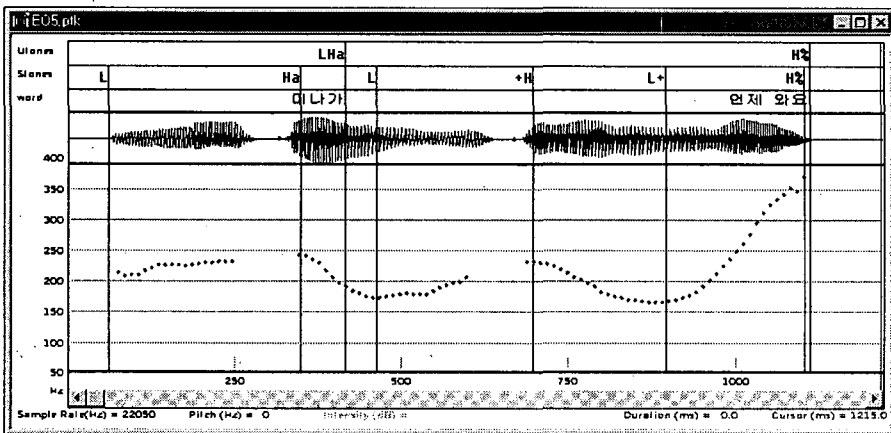


그림 11. '언제'를 포함한 반복의문문

그러나 앞서 제시되었던 [그림 5]에서처럼 의문사의문문은 H% 경계성조가 나타날 수

- 6) 반복의문문에 나타날 수 있는 '누구, 뭘, 어디, 언제'는 의문사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정사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험자료의 맥락상에서 반복의문문에 나타나는 '누구, 뭘, 어디, 언제'는 모두 의문사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부정사로 해석되는 반복의문문의 경우에는 음운구해지가 나타나지 않고 경계성조는 의문사가 포함된 반복의문문과 동일하다.

있다. 다만, 기본주파수값에서 반복의문문이나 가부의문문보다 낮은 H% 경계성조를 갖는다는 것이 의문사의문문의 특징이었다. 경계성조 유형으로는 동일하게 H%의 경계성조를 갖는 경우 두 억양 패턴에서 보이는 차이는 경계성조에서의 기본주파수 값이다. [그림 10]의 경우에는 250Hz이며 [그림 11]의 경우는 370Hz이다. 의문사의문문에 나타나는 경계성조를 ‘낮은 상승의 H%’, 반복의문문은 ‘높은 H%’처럼 서로 다른 경계성조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앞서 가부의문문과 의문사의문문의 경계성조에 대한 논의에서처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피치 값의 차이가 경계성조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두 가지 경계성조가 서로 다른 질문으로 해석되는 데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점이다.

반복질문이라는 의미 전달은 발화 단위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의심이나 반복의문문에서 의문사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이미 나온 정보에 대한 화자의 의심이나 반복을 표현한다. 따라서 의문사의문문에서 나타났던 정보 중심이라든지 새 정보로서의 의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질문의 의미에 화자의 놀라움이나 의심과 같은 감정적인 이유가 질문의 중심이 되어 경계성조에서 질문의 H% 타입은 유지하면서 피치값의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반복의문문에서 의문사는 정보초점을 잃고 단순한 강조초점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치값의 범위가 화자의 감정 상태 등과 관련된다는 설명과 일치하기도 한다.

6. 결 론

이상의 실험을 통해 의문문의 피치패턴은 질문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억양 패턴은 의미와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하며 특히 경계성조의 차이는 질문의 의미 기능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의문문의 억양 패턴이 단순히 문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화상에서 화자와 청자간의 의미 전달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의문사의문문과 부정사가 포함된 가부의문문에 대한 기존의 실험에서는 경계성조를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이 서로 다른 경계성조 유형인지 음성적 차이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질문의 의미 해석 범위와 초점의 운율 실현 범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계성조에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논의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문사의문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H% 경계성조와 HL% 경계성조는 서로 변별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의문문에서 낮은 H%나 HL%의 경계성조는 ‘누구, 뭘, 언제, 어디’에 정보초점이 실현되고 그 결과로 경계성조가 낮아지는 H%의 음성적 변이로 볼 수 있다. 둘째, 의문사의문문과 동일하게 선택의문문에서 나타나는 HL% 경계성조는 두 가지 의문문에 우연히 나타나는 동일한 유형이 아니라, 초점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이다. 즉, 의문사의문문과 선택의문문의 경계성조는 정보초점이 부여되는 경우이고 초점 단위의 흔들림에 공조하여 경계성조의 기본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결과이다. 셋째, 반복의문문의 경계성조는 발화상에서 반복 질문이라는 의미로부터 정보초점이 부여되지 못하고 강조초점만이 개입될 수 있다.

또한 경계성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H%는 화자의 의도나 감정 등이 피치값의 범위를 늘리는 현상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기호. 1999. "억양음운론의 소개: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6, 119-143.
- [2] 김미란. 2000.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나타난 초점과 문미 억양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이영길. 1988. *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이영길. 1999. "억양과 초점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말소리 38호.
- [5] 이민행 · 최재웅 · 홍민표 외. 1999.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의미 기술*. 한신문화사.
- [6] 장석진. 1973. "화의 생성적 연구". 어학연구 9(2).
- [7] 장석진. 1974. "보이나 안 들리는 '너'와 '나'-화용상의 기술", 어학연구10(2).
- [8] 장석진. 1975. "문답의 화용상". 어학연구 11(2).
- [9] 장석진. 1984. "화행의 이론과 실제-동문서답". 어학연구 20(1).
- [10] 전선아 · 오미라. 1995. "A Prosodic Analysis of Three types of Wh-phrase in Korean". *Language and Speech* 39(1), 37-61.
- [11] 최재웅. 1985. "Pitch-accent and q/wh words in Korean," in Kuno, S., Whitman, J., Lee, I-H. and Kang, Y-S.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113-123. Seoul: Hanshin.
- [12] Ladd, D. Robert.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3] Pierrehumbert, J. 1987.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14] Jun, Sun-Ah. 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The Ohio State University.
- [15] Beckman, Mary E. 1996. "The Parsing of Prosody".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1(1/2), 17-67.
- [16] Ward, G. and Hirschberg, J. 1996. "Implicating uncertainty: the pragmatics of fall-rise intonation." *Language* 61.

제출일자: 2000. 10. 30.

게재결정: 2000. 11. 28.

▲ 김기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1가 5번지 (우: 136-701)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O)

E-mail: keehokim@mail.korea.ac.kr

- ▲ 김미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1가 5번지 (우: 136-701)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E-mail: juvelo71@hotmail.com

- ▲ 신동현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1가 5번지 (우: 136-701)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dongxian@hanmail.net

- ▲ 최재응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1가 5번지 (우: 136-701)
고려대학교 언어과학과
Tel: +82-2-3290-2172 (O)
E-mail: jchoe@mail.korea.ac.kr